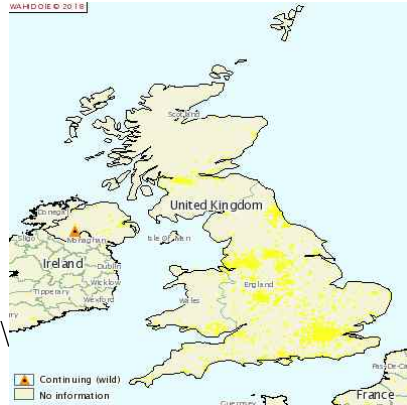


영국 영국에서 가재전염병(Crayfish plague) 발생

영국의 환경식품농무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는 흰집게발 가재(White clawed crayfish)에서 가재전염병(Crayfish plague, *aphanomyces astaci*)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현지조사 중 발견된 죽은 화이트 크로우 가재 20마리가 가재전염병에 양성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재전염병에 걸린 가재가 발견된 곳은 블랙워터강(River Blackwater) 상류지역으로 1990년부터 2000년 사이에 연어 서식지로 개발된 곳이다. 현재 예찰이 진행 중이며, 가재전염병에 대한 추가 발생 보고사항은 없는 상황이다.

[발병 세부정보]

발병국가	영국
품종	화이트 크로우 가재 (White clawed crayfish)
발생질병	가재전염병 (Crayfish plague, <i>aphanomyces astaci</i>)
최초발병일	2018. 8. 31.(확진일 : 2018. 9. 14.)
OIE통보일	2018. 10. 15.
발병세부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확한 감염원인 확인 중 ○ 현지조사 중 사체에서 발견
후속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신 처리 (가용한 백신 있을 시) ○ 감염된 가재에 처리 금지
발병지역	 <p>The map shows the United Kingdom with a yellow shaded area indicating the region of concern in the south of England, specifically the River Blackwater area. A legend indicates 'Continuing (wild)' with a yellow square and 'No information' with a white square.</p>
조치결과	발병 상황 지속되고 있으며 주간보고 제출 예정
국내에 미치는 영향	가재전염병은 국내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수입산 가재에 대한 가재전염병 검역이 진행되고 있음. 영국은 우리나라와 검역조건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나라로 가재 수출이 불가능하여, 영국산 가재 수입을 통한 가재전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낮을 것으로 판단됨

◆ 일자 : 2018년 10월 15일

◆ 출처 : http://www.oie.int/wahis_2/public/wahid.php/Reviewreport

미국 15년 만에 미시건 주에 농어 바이러스성 질병 발생

15년 만에 미국 미시건 주에 농어의 대량폐사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발생하였다. 미시건 주 지역 언론사인 미시건 라이브에 따르면, 15년 동안 보이지 않았던 바이러스성 질병이 발생하여 미시건 호수(Michigan lake)에 서식하는 큰입농어(Largemouth seabass)의 대량폐사를 일으켰다고 보도했다. 해당 바이러스는 큰입농어 바이러스(LMBV)로 불리고 있으며, 알코나(Alcona)와 로스코(Losco) 카운티(county)에 걸쳐 있는 세다 호수(Cedar lake)에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천연자원부(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에 따르면, 세다 호수에 LMBV가 발견된 사례는 처음이며, 100번 이상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어류에 피해를 끼치는 바이러스로 개구리나 다른 양서류에서도 검출되는 바이러스와 유사하다고 전했다. 이번에 발생한 LMBV 감염증의 원인은 불분명하나 낚시꾼들이 해당 바이러스에 감염된 어류를 잡아 세다 호수로 이동시켰거나 또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낚시 도구를 이용하여 낚시를 함으로써 해당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LMBV는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으며, LMBV에 감염된 어류의 경우 익혀서 섭취하면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LMBV에 감염된 어류는 부레에 이상이 생겨 수영에(swimming) 장애를 일으키는 증상을 보이게 된다.

◆ 일자 : 2018년 10월 16일

◆ 출처 : Mlive(Michigan Live)

(원제 : Disease returns after 15-year absence to kill fish in Michigan lake)

체코 허피스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양식장 살처분 명령

체코의 이스트 보헤미아(East Bohemia)의 수의사들이 허피스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파르두비체(Pardubice) 인근 분코브(Buňkov) 양식장에 대하여 약 80톤가량의 어류를 폐기할 것으로 명령했다. 어류에 감염되는 허피스바이러스는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으나, 어류에게는 전염성이 높은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분코브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허피스바이러스 감염증은 체코에서 올해 처음으로 발생한 사례에 해당된다.

◆ 일자 : 2018년 10월 15일

◆ 출처 : Radio Prague

(원제 : Fish infected with herpes virus ordered destroyed)

우간다 주요 어병 세균에 대한 항생제 내성 여부 확인

우간다 마케레레 대학교와 노르웨이 생명과학대 연구팀은 우간다에서 주로 발병하고 있는 세균성 질병에 대한 적절한 항생제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팀은 우간다 6개 지역에 있는 40개 양식장에서 사육 중인 나일틸라피아와 아프리카 메기를 채취하여 세균성 감염증을 일으키는 19개의 세균을 검출하였다. 19개의 세균 중 가장 많이 검출된 에로모나스(*Aeromonas* spp.) 세균과 플레시오모나스 쉬겔로이디스(*Plesiomonas shigelloides*)에 대하여 페니실린(*Penicillin*) 등 15개의 항생제에 대한 내성 여부 검사를 실시하였다. 항생제 내성여부 검사 결과, 해당 세균은 페니실린, 옥사실린(*Oxacillin*), 암피실린(*Ampicillin*)에 내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결과가 양식장에서 발병하는 세균성 질병에 대한 치료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우간다에 존재하는 어병 세균은 여러 종류의 항생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연구팀은 또한 고밀도 양식이나 육상으로부터 항생제 내성 세균들이 양식장 등 수계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며, 향후 항생제 내성세균의 출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식장에서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우간다 내 주요 어병세균에 대한 항생제 내성 여부 관련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인 *Fisheries and Aquatic Science*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일자 : 2018년

◆ 출처 : *Fisheries and Aquatic Sciences* (DOI 10.1186/s41240-017-0080-x)

터키 텐치(Tench)에서 *Ligula intestinalis* 검출

잉어과 어류로 알려진 텐치(Tench, *Tinca tinca*)에서 조충류에 속하는 리구라 인테스티나리스(*Ligula intestinalis*, 이장 리구라 기생충)가 검출되었다. 터키 추쿠로바 대학교 연구팀은 고티사르 호수(Gölhisa Lake)에 서식하는 텐치를 수집하여 확인한 결과 복강 내에서 조충류인 리구라 기생충을 검출하였다고 전했다. 리구라 기생충에 감염된 텐치는 체색이 검어지고 눈 주변부, 지느러미 기저부위와 항문 주변부에 출혈이 관찰되고, 복부팽만과 비정상적 유영(irregular swimming)을 보이게 된다. 텐치에 감염된 리구라 기생충 감염증에 대한 자세한 연구 결과는 이스라엘 학술지인 *Israel Journal of Veterinary Medicine* 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리구라 인테스티나리스(*Ligula intestinalis*)에 감염된 텐치(Tench, *Tinca tinca*)

- ◆ 일자 : 2018년
- ◆ 출처 : *Israel Journal of Veterinary Medicine* 73(1), 31-34, 2018.